

기타리스트 함춘호 “트로트 시대이어 포크의 시대 올 것”

TBS FM ‘함춘호의 포크송’ 40년만에 DJ 데뷔
“포크, 음악계 다양성 위해 필요...위로줄 것”

“포크적인 사운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이 생겼어요. 송창식 선배님의 포크는 사운드와 메시지가 좋아요. 제작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야흐로 트로트 시대에 이어 이제 포크의 시대가 올 것이다. 기타 대신 마이크를 잡은 기타 명인 기타리스트 함춘호(59)가 내놓은 대중음악계 청사진이다.

그는 지난 11일 처음 방송된 교통방송(TBS) FM ‘함춘호의 포크송’(매주 일요일 오전 7~8시·연출 김경래 김현우)의 진행을 맡아 DJ로 데뷔했다. 국내 첫 포크 전문 프로그램이다.

최근 삼암동 TBS 사옥에서 만난 함춘호는 “트로트는 많은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갈망했던 것을 채우며 팬덤을 형성했다”면서 “포크도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크의 전설 어니언스 등 술한 포크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밤을 지새웠던 젊은 때를 떠올렸다. “현재 음악 장르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울어지고 있는데 포크는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요. 그 포크를 끌어내서 많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이 DJ 자리를 택했죠. 아직 독자인, 약자인 모르겠어요. 하하.”

포크 장르는 싱어송라이터의 산실

이다. ‘씨시봉’ 송창식·윤형주·김세환, 김민기, 양희은, 조동진 등이 대표적이다. “포크는 저항이라는 한 축을 만들어왔고, 시적 자제가 메시지도, 밥 딜러와 존 바에즈는 반전 운동과 히피 문화를 대표하고요. 포크라는 것이 청년 문화 형태에 달라지지는 했지만, 적어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함춘호는 “포크를 들던 세대들이 세월이 흘러 기성 세대가 됐어도, 포크는 젊은 시절에 느낀 뜨거운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여겼다.

함춘호 역시 포크의 계보를 계승해온 인물. 고교 3학년이던 1979년 전인권과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1981년 이광조의 ‘저 하늘의 구름 따라’ 음반에 참여하며 기타 세션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1986년 전설적인 포크 듀오 ‘시인과 촌장’ 2집 ‘푸른 돛’으로 공식 데뷔했다. ‘대중음악 100대 명반’ 조사에서 14위를 차지한 음반이다.

특히 조용필, 이선희, 신승훈, 이문세, 김광석, 양희은, 이승철, 임재범, 유희열(토이), 아이유, 트와이스 등 노래하는 가수들과 작업하며 한국의 대중음악을 이끈 기타리스트로 유명하다. 그가 참여한 음반 목록을 정확히 따지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라는

얘기가 대중음악계에서는 나온다.

학창 시절 성악을 한 함춘호는 기타를 노래하듯 연주한다. 가수들과 화음을 이뤄 곡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평가가 당연한 이유다. 함춘호는 “감정을 노래하듯이 연주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음악계에 ‘살아 있는 백과사전’으로도 통한다. 술한 가수들과 작업을 하다 보니, 그에겐 여러 가수들의 특징과 현장에 담긴 음악 생태계가 유전자처럼 각인돼 있다. DJ를 하면서 그간 경험들도 자연스럽게 술술 풀어낼 것으로 보인다.

함춘호는 “그게 재산이 될 지 몰랐다”고 웃었다. “시대 별로 음악의 변곡점을 다 거처왔어요. 포크, 발라드, 발라드 그리고 힙합까지. 송창식 선배랑 함께 하다 보니 씨시봉까지 거슬러 올라가 제가 활동하지 않았던 시대인 포크까지 섭렵하게 됐죠.”

함춘호는 달변가다. 그런데 설탕 발림이 아닌,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인 천연 감미료 ‘조청’ 같은 진득하고 편안한 달콤함이다. 음악처럼 귀에 속속 들어온다. 그런 그의 곁에 천군만마까지 뒀다.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가 방송작가, 베타랑 엔지니어 허성혁 씨가 음향을 맡았다.

이런 라디오계의 어벤저스 같은 조합은 포크의 확장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프랑스 피아니스트 로랑 퀴니와 협업, 이리랑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악

장르의 확장성을 꾀하기도 한 함춘호는 포크의 확장성도 무궁무진하며 긍정했다.

TV조선 ‘뽕송아학당’에서 ‘미스터 트롯’ 멤버들, KBS 2TV ‘악인전’에서 ‘미스 트롯’ 송가인과 기타 한대로 호흡을 맞춘 그는 “기타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트로트에서 포크적인 요소를 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방송의 선곡은 함춘호가 직접한다. 첫날 방송 주제는 ‘행복’. 한대수 ‘행복의 나라로’를 시작으로 김민기 ‘가을 편지’, 성시경·아이유의 ‘그대네요’, 심센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조동진의 ‘행복한 사람’ 등을 아울렀다. “가을이잖아”는 양희은 씨 곡인데, 아이유 씨도 불러줬어요. 한 노래를 여러 가수가 부른 버전을 들려주는 등 다양한 주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꼭 초대하고 싶은 가수는 물론에 현답이 돌아왔다. “별로 없어요. 포크를 나누고,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차라리 비전문가를 초청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포크는 메시지잖아요.”

포크는 현재 K팝의 ‘정신적 유산’으로도 보는 시선이 있다. 세계적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주축으로 K팝이 사랑 받는 이유 중 하나로 노랫말에 포함된 메시지가 꼽히는데, 포크는 메시지 그 자체를 담기 때문이다.

몇년 전에 스페인 라스팔마스 마드리드 문화원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는 함춘호는 “K팝의 모티브가 이거라



고 자신이 이야기하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으며 포크의 세계화도 탐색했다.

“많은 평론가들이 방탄소년단에 대해 아이돌 음악인데 메시지를 담았다고 평하잖아요. 희망적인 것을 많이 담았고 세계적인 팬덤이 형성됐죠. 우리 방송도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와 사운드의 포크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요즘 뛰어난 비주얼이 충족되지 않으면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죠. 그걸 답기에 포크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청룡영화상 시상식, 12월 11일 오프라인 개최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려



제40회 청룡영화상 시상식. (사진=주최 측 제공)

제41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12월 11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

주최 측은 14일 “올해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면서도 알찬 행사를 마련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임에도 한국 영화를 빛내고 있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소 움츠러든 영화계에 따뜻한 응원을 전하고 활기를 불어넣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 상은 1963년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했다. 영화 전문가 설문조사와 네티즌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자(작)를 선정한다. 후보자(작) 선정을 위한 네티즌 투표는 다음 달 초부터 청룡영화상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14일부터는 유일한 단편부문인 ‘청정원 단편영화상’ 출품작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유학생 포함) 등 누구나 출품이 가능하며 2019년 11월 1일 이후 완성된 40분 이내의 단편 극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석 ‘아로하’, 1억 스트리밍...가온차트 플래티넘 인증

‘슬기로운 의사생활’ 종영이후에도 음원차트서 인기 이어가

배우 조정석이 부른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아로하’가 누적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13일 소속사 쟈네티엔터테인먼트와 가온차트에 따르면 조정석은 최근 플래티넘(Platinum) 인증 마크를 받았다.

이 마크는 가온차트에 집계되는

2018년 1월 1일 작품부터 누적 사용·판매량이 일정 수를 초과할 경우 인증해 공표된다.

조정석이 가장한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OST ‘아로하’는 가온차트 누적 스트리밍 1억 건을 뛰어넘어 스트리밍 부문 플래티넘 인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조정석은 지난 3월 혼성그룹 ‘달’의 노래인 ‘아로하’를 드라마 OST로 발표했다. 이 노래는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국내 주요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등 큰 사랑을 받았다.

뮤지컬배우 출신인 조정석의 뛰어난 가창력과 감미로운 목소리는 호평을 받았고, 지난 5월 ‘슬기로운 의사생활’ 종영 이후에도 음원 차트에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에이프릴, BIAF2020 축하 공연...23일 개막식

27일까지 개최

그룹 ‘에이프릴’이 제22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2020) 축하 공연을 통해 개막식의 포문을 연다.

14일 BIAF2020 축에 따르면 에이프릴은 오는 23일 개막식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은 BIAF2020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이나은은 영화제 개막식에서 개막

작 ‘캘리미티 제인’을 소개한다. 앞서 그는 ‘해수의 아이’, ‘번개맨: 더 비키닝’, ‘극장판 바이올렛 에버그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 등의 추천작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근 대위, 이번엔 폭행 의혹...“술 마시고 사람 때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이근 폭행 전과 폭로

최근 성추행 전력이 공개된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에게 폭행 전과가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근에게는 성범죄 말고 또 하나의 전과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2015년 발생한 한 폭행사건에 대한 법원 사건기록을 공개하며 “사건명은 유일한 단편부문인 ‘청정원 단편영화상’ 출품작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유학생 포함) 등 누구나 출품이 가능하며 2019년 11월 1일 이후 완성된 40분 이내의 단편 극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했다. 또 “약식사건이라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없어 법원에 판결문 발급신청을 했다”며 “곧 공개하겠다”고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그는 “이근은 엄밀히 말하면 전투병기다. 이런 사람이 술을 마시고 사람을 때렸다”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 사람 인성 괜찮냐? 문제가 없냐?”라고 비난했다.

앞서 김씨는 이근 대위의 성추행 유죄 판결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근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허위 경력 주장에 대해서는 UN 여론을 공개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승연, 영화 ‘애타게 찾던 그대’ 캐스팅

스릴러 첫 도전

배우 공승연이 단편 영화 ‘애타게 찾던 그대’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가 14일 밝혔다.

제24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괴담’ 단편 제작지원 공모전 시상식에서 선발된 이민섭 감독의 판

타지, 공포, 스릴러 장르의 영화다. 기묘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된 두 사람의 본심을 다룬다.

공승연은 극 중 우연히 지나가던 남자의 통화 소리를 듣고, 다짜고짜 그에게 말을 걸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여자’ 역을 맡았다.

데뷔 이후 첫 스릴러 영화에 도전한다.

2012년 CF를 통해 데뷔한 공승연은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마스터-국수의 신’, ‘내성적인 보스’, ‘쓸쓸: 이어진 두 세계’, ‘별리섬’, ‘너도 인간이니?’, ‘조선혼담공작소 꽃파당’ 등에 출연했다.

‘멜로의 바이블’ 영화 ‘노트북’ 내달 4일 국내 재개봉

메가박스에서 재개봉 확정

실화를 바탕으로 한 로맨스 영화 ‘노트북’이 내달 4일 메가박스에서 재개봉을 확정했다.

영화 ‘노트북’은 사랑스러운 ‘엘리’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노아’가 뜻밖의 첫사랑으로 만나, 엇갈린 운명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그린 로맨스 멜로 영화다.

‘노트북’은 무려 52주간 베스트셀러였던 원작소설 ‘The Notebook’의 작가 니콜라스 스프라크스의 장인, 장모의 실제 이야기로 알려졌다.

또한 레이철 맥아담스와 라이언 고슬링이 만든 명장면과 주옥 같은 명대사로 십 수년이 지난 오늘 까지도 많은 이들의 ‘인생영화’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로맨스 영화의 부재와 더불어 코로나19로 기대작들의 개봉 소식이 주춤하고 있다.

멜로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자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노트북’의 재개봉이 관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스

